

이용자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odern Literature Service Based on User Awareness Survey

곽 승 진(Seung-Jin Kwak)**

노 영 희(Younghee Noh)***

정 대 근(Dae-Keun Jeong)****

〈목 차〉

I. 서론	2.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II. 선행연구	3.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
III. 연구질문	4.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IV. 연구설계 및 방법론	VI. 논의 및 제언
V.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자 인식	1. 논의
조사 결과	2. 향후 연구 제언
1. 인구통계적 특징	VII.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근대문학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경험자의 이용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근대문학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시 및 관람 정보에 대한 홍보는 근대문학자료 이용자들의 직접적 발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 관람 행사의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응답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매체가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하였으나, 저학력과 고연령층에서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홍보매체의 선정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근대문학자료, 근대문학자료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자 인식조사, 서비스 활성화 방안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usage and Satisfaction Levels of modern literature services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explore the strategies to promote the use of the modern literature service. The result show that the usage rate of users for the modern literature service is very low,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xperienced users are found to be normal.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and the Satisfaction Level, first, it is required for active promotion of current modern literature services. Second, the public relations of exhibitions and viewing information are provided direct access to users of the modern literary materials, so various types of exhibitions and events are necessary. Third, although respondents said that library homepage, portal site, and SNS are effective public relations methods, in the case of less-educated and seniors, they prefer public relations through offline media. Therefore, deeper theoretical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in order to select affordable public relations media.

Keywords: Modern library, Modern literary service, Usage status, User awareness survey, Service activation plan

* 본 논문은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도서관서비스 방안 개발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dk1319@jnu.ac.kr)

•논문접수: 2018년 1월 28일 •최초심사: 2018년 2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47-75,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3.47]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근대문학자료 수집과 관리의 공식적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자료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현황 파악, 유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위해 근대문학자료의 정확한 자료현황, 소장처 확인, 서지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목록을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1894~1945년의 문학단행본의 목록 및 소장정보, 2015년에는 1946~1960년의 문학단행본의 목록 및 소장정보와 1895~1945년 문학전문잡지 및 기사색인, 2016년에는 1894~1945년 주요 종합잡지 소장실태 및 기사색인, 1910~1945년 발간 매일신보의 소장실태 조사 및 기사색인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근대문학 연구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문학관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망 운영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근대문학자료 이용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 내에 근대문학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목록시스템은 근대문학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문학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목록, 목차, 해제, 원문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4년 12월에 개발하였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대문학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은 근대문학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학 소장자료 검색 기능과 1,194여 건의 소장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자원 메뉴를 통해 작가별, 사건별 근대문학연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약 6만 건의 참고정보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 서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 맞춤형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주 이용자 및 이용 목적, 이용률이 많은 근대문학 분야 및 자료형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홍보 매체,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 사항,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강화,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선행 연구

근대문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근대문학자료를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는지, 어떤 근대문학자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는 조사의 대상 기간을 1894~1945년까지로 한정하고 이 기간에 발간된 근대문학 관련 단행본의 소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1945~1960년 문학 단행본의 경우 2,115종을 기재한 1차 목록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1895~1945년 문학잡지의 경우 식민지 시대 발간된 잡지 목록 322종을 조사하고, 1차 목록으로 120종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상임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4종이 추가된 124종의 문학잡지를 2차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웹 검색이 가능한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한국 문학관 협회 홈페이지의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 자료 DB를 참조하고, 각 사립 고등학교 사서들과 원로문인들에게 협조요청을 보내 추가 목록을 확보하여 조사자료 목록을 추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개인 소장자 현황 파악,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2014년도에 실시되었다. 홍현진 등(2014)은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분야 주제가이드를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적 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이용자 요구조사 등을 통해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약 2만 5천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국내 최초의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후 노영희 등(2016)은 근대문학분야 주제가이드 연구의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근대문학자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으로 근대문학에 대한 각종 유형별 자료와 소장처 등을 한 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해 온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와 주제가이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근대문학 저자에 관련한 원자료와 그 후속 자료 등을 다루는 것은 물론 소장처에 대한 자료 조사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자료 종류부터 저자까지 근대문학의 정의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근대문학 자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그 수가 광범위해 구축한 DB에 대한 검증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대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대문학자료의 주 이용자와 전문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복합문화기관

으로서 전시, 체험, 문화향유 등 라키비움 기능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문학관, 공공도서관과 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근대문학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근대문학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 근대문학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근대문학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이용자는 서비스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근대문학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근대문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인문학 정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은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에 등록 회원이 포함된 근대문학 교수 및 연구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반이용자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이용자 의견수렴 연구 설계

구분	방법
설문대상	근대문학 교수 및 연구자, 근대문학관련 초중고 교사, 일반 이용자 등
설문기간	2017.08.01.~2017.09.20
설문장소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이용자 오프라인 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은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을 거쳐 이용자 일반사항 4개 문항, 이용현황 8개 문항, 근대문학서비스 만족도 2개 문항,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내용 및 문항 구성

구분	문항내용
인적사항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이용자유형
이용현황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주 이용자
	서비스 주 이용 목적
	근대문학자료 검색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이용률이 많은 근대문학 분야
	선호하는 근대문학자료 형태
	주 이용 정보원
서비스 만족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만족 여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항목별 세부 만족도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접촉 경험 여부
	제공 받아 본 서비스 안내 및 홍보물
	적용하면 효과적인 홍보 매체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 사항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강화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V.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1. 인구통계적 특징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수 203명 가운데 남성이 100명으로 49.3%, 여성이 103명으로 50.7%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연령대는 41세~50세로 61명(30%)이었으며, 다음으로 20~30세(47명, 23.2%), 31~40세(42명, 20.7%), 61세 이상(30명, 14.8%)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대학원 졸업자가 전체의 81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 61명(30.0%), 대학원 재학 및 수료 23명(11.3%), 대학 재학 중 22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용자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유형은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이용자 그룹으로 70명(34.5%)이었으며, 다음으로 문학 관련 교수 그룹이 43명(21.2%), 국어·역사 교사 그룹이 30명(14.8%)순으로 나타났다.

2.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5%는 한 번도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54%는 10회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이용이 없거나 10회 이하에서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11회 이상에서 높았고, 31회 이상 이용 경험에 있는 이용자의 경우 여성(6%)에 비해 남성(20%)이 월등하게 높아,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대문학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40세의 경우 2명 중에 1명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반면 61세 이상은 전체의 36.7%(11명)가 31회 이상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원생, 문학 관련 연구자, 문학 관련 교수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많이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서비스 이용 경험 빈도	N	%
없음	71	35.0
10회 이하	76	37.4
11회 ~ 20회	18	8.9
21회 ~ 30회	11	5.4
31회 이상	27	13.3
전체	203	100.0

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과거에 제공하였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2.5%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했다는 응답자가 31.5%(이용경험자 중 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대문학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해 봤다가 23.2%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시, 관람, 워크숍, 세미나, 간행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응답자의 8.9%로 매우 낮았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3.9%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1세 이상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찾는 비중이, 41~60세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높은 학력을 소유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낮은

학력의 소유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비율이 높았고, 높은 학력의 소유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국어·역사 교사들의 경우 10명 중 7명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학생이나 일반이용자의 경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형태를 선호했으며, 문학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을 선호했다.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의 경우 문학 관련 교수(9.3%)들이 조금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대문학자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제공하는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경험

이용 경험 서비스	N	%
이용 경험 없음	66	3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문학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열람	64	3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문학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47	23.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한 근대문학 관련 전시 관람	8	3.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한 근대문학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참가	4	2.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 이용	8	3.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근대문학 관련 간행물 열람	6	3.0

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주 이용자 인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주 이용자층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7%가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대문학 종사자는 22.2%를 차지하였다. 남성(52%)보다는 여성(61.2%)이 주 이용자층을 근대문학 연구자라고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성(19%)들의 경우는 여성(7.8%)들보다 일반이용자에 대한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1~50세(77%), 51~60세(68.2%)의 연령대가 근대문학 연구자가 주 이용자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1세 이상(23.3%)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일반이용자가 주 이용자층이 되어야 한다고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문학 관련 교수(95.3%) 및 연구자(87.5%)는 압도적으로 연구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이용자의 경우 일반시민(27.1%)도 적극적인 이용자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주 이용자 그룹을 연구자로 설정하고 연구자를 위한 핵심서비스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반면 도서관은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전제로 할 때, 일반이용자를 위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도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를 위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와 일반이용자를 위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주 이용자 인식

이용자 유형	N	%
근대문학 연구자	115	56.7
근대문학관련 종사자	45	22.2
교사(국어, 역사 등)	6	3.0
대학생	6	3.0
초·중·고등학생	0	0.0
일반시민	27	13.3
기타	4	2.0
전체	203	100.0

라.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목적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근대문학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3.158), 근대문학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3.039)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이용 목적인 연구자료 활용(2.926), 근대문학 학업(2.882), 교육자료 활용(2.724), 과제자료 수집(2.626), 작품 배경지식 습득(2.197) 등은 보통(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근대문학 관심 충족과 근대문학 관련 정보 수집의 두 항목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이러한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용자 보다 연령이 높은 이용자들이 더 높은 이용 목적을 나타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이용 목적을 나타냈으며,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이용목적들을 보였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작품활동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높은 이용 목적을 보였다. 교사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용의사가 낮았으며, 문학관련 교수 및 연구자들의 경우 근대문학 관련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항목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이용자 그룹은 근대문학 관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라서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의사를 보였으며, 서비스 경험이 있는 이용자 간에는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용자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 보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더 적극

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근대문학에 대한 관심 충족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있어서는 근대문학종합목록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높았으며, 연구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주 이용목적은 근대문학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관심 충족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문학 이용 빈도 및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확인하였듯이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없는 이용자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차 목표로 잠재적 근대문학 이용자를 이용자 그룹으로 속할 수 있는 동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근대문학종합목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높음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6〉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목적

서비스 이용 목적	전혀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음	보통	이용함	매우 이용함	M	Std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54(26.6)	27(13.3)	36(17.7)	52(25.6)	34(16.7)	2.926	1.459
근대문학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한다.	40(19.7)	21(10.3)	54(26.6)	67(33.0)	21(10.3)	3.039	1.281
근대문학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한다.	38(18.7)	17(8.4)	49(24.1)	73(36.0)	26(12.8)	3.158	1.299
시나리오나 기타 작품을 쓰기 위한 배경지식을 위해 이용한다.	76(37.4)	51(25.1)	46(22.7)	20(9.9)	10(4.9)	2.197	1.186
과제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이용한다.	57(28.1)	39(19.2)	46(22.7)	45(22.2)	16(7.9)	2.626	1.312
근대사 혹은 근대문학에 관련한 학업을 위해 이용한다.	51(25.1)	24(11.8)	47(23.2)	60(29.6)	21(10.3)	2.882	1.352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다.	56(27.6)	28(13.8)	51(25.1)	52(25.6)	16(7.9)	2.724	1.321

마. 근대문학자료 서지데이터 정보 요소 중요도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시 제공되는 서지데이터의 정보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29개 서지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자료명(4.305), 저자(4.266), 원저작명(4.203), 자료유형(3.911), 발행년(3.887), 문학장르(3.768), 발행기관(3.759), 자료소개(3.795) 순으로 서지데이터 정보 요소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제어번호(2.862), 크기(2.936), 등록번호(3.030), 가격(3.059), 면수(3.138), 별칭기호(3.143), 청구기호(3.217), 국가구분(3.266) 등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요 요소로 평가한 항목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자료명은 30대가 60대 이상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저작명의 경우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저자는 20대보다 40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요 요소인 자료명, 원저작명, 저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들이 더 높게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 유형, 편권차, 권호정보, 수록지명, 학술지명, 시기구분 등에서 학력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에 따른 근대문학자료 서지데이터 정보 요소의 중요도는 자료명, 원저작명, 저자, 번역가, 자료유형, 발행기관(발행자), 발행년, 문학장르, 판본, 권호정보, 수록지명, 학술지명, 시기구분 에서 차이가 있었다. 중요 요소라고 응답한 자료명은 일반이용자보다 문학 관련 교수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원저작명과 저자의 경우 문학 관련 교수가 대학생이나 일반이용자에 비해 더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중요 요소로 봤을 때 일반인보다 문학 관련 교수가 자료명, 원저작명, 저자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및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따른 차이는 자료명, 원저작자명, 저자명 등 중요요소에서는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도서관 홈페이지 및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자료유형(단행본, 잡지, 신문 등)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타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편권차, 면수, 권호정보, 국가정보, 사이트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각 요소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지데이터 정보요소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인 방민호(2014)도 제안하였듯이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무관한 다량의 정보 제공은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설문 결과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요소의 경우 보완과 함께 제어번호 등을 포함하여 중요도가 낮은 요소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지데이터 요소에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단, 연구자와 일반이용자 사이에서는 필요 요소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 7> 근대문학자료 서지데이터 정보 요소 중요도

단위: 명

중요도	서지데이터 정보 요소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M	Std
1	자료명	2	5	18	82	96	4.305	0.812
2	저자	2	5	23	80	93	4.266	0.831
3	원저작명	3	7	26	75	92	4.203	0.901
4	자료유형(단행본, 잡지, 신문 등)	3	9	50	82	59	3.911	0.918
5	발행년	8	11	44	73	67	3.887	1.054
6	문학장르	6	13	55	77	52	3.768	1.000
7	발행기관(발행자)	6	14	59	68	56	3.759	1.027
8	자료소개	4	14	60	74	51	3.759	0.973
9	시기구분	7	21	57	60	58	3.695	1.097
10	학술지명	8	22	53	63	57	3.685	1.112

11	번역가	9	16	60	67	51	3.665	1.075
12	편권차(상, 하 등)	9	17	68	65	44	3.581	1.056
13	판본(초판본, 재판, 3판 등)	11	23	57	63	49	3.571	1.134
14	수록지명	10	31	53	57	52	3.542	1.170
15	소장기관 성격(도서관, 문학관 등)	6	23	75	57	42	3.522	1.036
16	첨부파일유무	13	30	60	52	48	3.453	1.186
17	소장처(소장자)	6	27	74	63	33	3.443	1.010
18	권호정보	12	35	63	56	37	3.350	1.139
18	사이트유형	14	29	72	48	40	3.350	1.152
20	자료 소장 지역	15	27	74	54	33	3.310	1.120
21	URL	14	25	80	57	27	3.286	1.066
22	국가구분	12	28	83	54	26	3.266	1.043
23	청구기호	13	37	76	47	30	3.217	1.105
24	별칭기호	12	45	77	40	29	3.143	1.101
25	면수	17	41	71	45	29	3.138	1.148
26	가격	18	36	88	38	23	3.059	1.084
27	등록번호(ISBN, ISSN 등)	17	45	81	35	25	3.030	1.108
28	크기	18	53	75	38	19	2.936	1.086
29	제어번호	22	53	79	29	20	2.862	1.104

바. 근대문학자료 주 이용 장르

근대문학자료의 주이용 장르 및 선호 자료 유형, 주이용 정보원에 대한 조사결과 주이용 장르에 대해 이용자의 46.5%는 소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 21.7%, 평론 8.4% 순으로 나타났다. 시와 소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8.5%를 차지해 10명 중 6~7명은 근대문학자료 중 시나 소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선호 자료 유형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8.9%가 근대문학 원본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원본자료 26.6%, 복각본 형태 2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로 단행본이 20.4%였으며, 다음으로는 근대문학자료의 원문 18.7%, 학술논문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근대문학자료에 주 확충 분야는 시와 소설이 될 수 있으며, 자료의 형태에 상관없이 원본자체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원본에 대한 확보 및 서비스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형태적 측면에서는 단행본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복각본 형태의 원본을 소

<표 8> 근대문학자료 주 이용 장르

이용자 장르	N	%
시	44	21.7
소설	95	46.8
수필	11	5.4
희곡	6	3.0
평론	17	8.4
이동문학	7	3.4
문학참고	13	6.4
번역번안	6	3.0
기타	4	2.0
전체	203	100.0

장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자들이 단행본 형식으로 자료를 볼 수 있고, 이를 디지털화 하여 원거리에서도 원본자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근대문학자료 선호형태

근대문학자료의 선호 자료 유형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8.9%(79명)가 근대문학 원본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원본자료에 대한 선호가 26.6%(54명),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재출판한 복각본의 형태가 20.2%(41명)로 나타났다. 응답결과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료의 형태에 상관없이 원본 자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근대문학자료 선호형태

자료 유형	N	%
근대문학 원본	79	38.9
복각본(원본과 동일하게 재출판)	41	20.2
영인본(원본의 복사본)	27	13.3
디지털 원본자료	54	26.6
기타	2	1.0
전체	203	100.0

아. 근대문학자료 주 이용 정보원

근대문학자료 중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질문 결과는 <표 38>과 같다.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단행본으로 20.4%(124명)가 단행본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근대문학자료의 원문 18.7%(114명), 학술논문 12.6%(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정보원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도 13.2%(82%)로 나타났다.

<표 10> 근대문학자료 주 이용 정보원

정보원 구분	N	%
근대문학 원문	114	18.7
단행본	124	20.4
학위논문	77	12.6
학술논문	104	17.1
학술회의자료	9	1.5
토론회 참석 및 토론회 자료	9	1.5
연구보고서	19	3.1
정부기관 배포자료	7	1.1
근대문학 관련 기관(유관기관, 관련학회) 배포자료	18	3.0
백과사전	37	6.1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자료	82	13.5
공동연구자 및 지인의 도움	9	1.5
전체	203	100.0

3.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

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37 점으로 보통(3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며, 학력, 이용자구분, 이용 빈도,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대학원생이 일반이용자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으며, 근대문학자료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11~20회 이용한 이용자의 경우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근대문학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이용자나 근대문학 관련 간행물을 열람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표 11〉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

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음	보통	이용함	매우 이용함	M	Std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만족도	3(1.5)	12(5.8)	106(52.2)	70(34.5)	12(5.9)	3.374	0.750

나. 근대문학자료 세부 만족도 조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제공정보 신뢰,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제공정보 활용가치, 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용, 다른 DB에서 없는 자료 소장,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재이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보존 및 활용가치에 대해서 3.97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역시 3.897로 높게 나타났다.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 대한 재이용의사도 3.798로 재이용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이용자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및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는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는 '활용목적 달성을 위해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을 재이용할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31회 이상 자주 이용한 이용자가 재이용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1호)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는 세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은 2~3%만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3%는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을 재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이용을 거부한 이용자는 3%에 불과하였다.

〈표 12〉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세부 만족도

단위: 명(%)

세부 만족도 문항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M	Std
근대문학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1	3	52	107	40	3.897	0.741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다	1	3	43	109	47	3.975	0.741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용은 효과적이다	1	5	85	80	32	3.675	0.785
포털이나 다른 DB에서 찾기 못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2	3	79	86	33	3.714	0.788
활용목적 달성을 위해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을 재이용할 것이다	2	4	67	90	40	3.798	0.811

4.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선행연구들에게 지적한 홍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홍보에 대한 제공경험 및 다양한 홍보물 유형에 대한 제공 경험과 원하는 홍보물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홍보 경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제공 경험을 조사한 결과 60%의 응답자가 단 한 번도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적으로 홍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9% 정도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홍보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1세 이상(3.267)이 20대(2.191), 30대(2.048), 40대(2.115)보다 더 많이 들어 봤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생(1.955)보다 고등학교 졸업자(3.333)들이 많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였고,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사와 대학생의 경우가 다른 이용자 그룹에 비해 홍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학관련 종사자(3.000)과 일반이용자(2.886)은 다른 이용자유형에 비해 더 많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3점) 정도였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근대문학자료 서비

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 사이에는 확실하게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홍보를 많이 접해왔다고 응답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이용 경험 역시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에 비해 홍보를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대 문학 관련 전시를 관람(4.000)한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근대문학서비스에 대해 홍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홍보이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홍보 경험

구분	전혀 경험하지 못함	경험하지 못함	보통	경험함	매우 경험함	M	Std
근대문학자료 홍보 경험	60(29.6)	61(30.0)	43(21.2)	32(15.8)	7(3.4)	2.335	1.159

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공 경험

다양한 홍보물의 유형 중 제공 경험이 있는 홍보물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홍보 매체에 대하여 낮은 경험치를 보였다. 경험한 홍보물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을 보이는 유형은 도서관 홈페이지(2.862),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2.473),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2.373)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로를 통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많이 홍보물에 접하고 있는데, 신문, 지역구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간담회 및 공청회, 도서관 홈페이지, 일간지, 잡지, 휴대폰, 이메일, 포털사이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홍보물을 제공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20대, 30대, 40대에 비해 연령이 높은 50대와 61세 이상에서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접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61세 이상은 3.067로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을 통한 경험은 61세 이상이 3.200, 50대가 3.000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한 경우는 50대가 3.591, 61세 이상은 3.500으로 전체 평균 2.8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신문, 지역구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간담회 및 공청회, 일간지, 잡지, TV, 라디오, 휴대폰, 소셜미디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이의 대부분은 대학 재학생보다 대학졸업자가 다양한 유형의 홍보물을 접하고 있었다. 인터넷 방송, 도서관 홈페이지, 이메일, 포털사이트의 이용은 학력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물 제공, SNS를 통한 홍보물 제공 두 홍보물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반이용자의 경우 홍보물을 통해 근대문학을 접했다는 응답이 다른 이용자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및 문학 관련 교수 등도 다른 이용자 그룹에 비해 홍보물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근대문학자료 이용 빈도에 따른 홍보물 경험 유형은 인터넷 방송, 신문, 지역구 홍보물,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도서관 홈페이지, 일간지, 잡지,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이용 경험이 더 많이 홍보물에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홍보물의 유형별 제공 경험에 차이는 홍보물의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보다 많은 홍보자료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홍보물 유형에 대한 홍보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근대문학에 대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접하고 있었으며, 여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의 홍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 매체의 다양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표 14〉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안내 홍보물 제공 경험

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공 경험	전혀 경험하지 못함	경험하지 못함	보통	경험함	매우 경험함	M	Std
인터넷 방송	90	51	34	23	5	2.025	1.136
신문(지역신문)	76	50	51	21	5	2.158	1.115
지역구 홍보물	85	61	39	13	5	1.975	1.046
대중교통 광고	87	59	38	14	5	1.970	1.057
전광판	85	58	42	14	4	1.985	1.041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65	37	50	42	9	2.473	1.256
간담회 및 공청회	77	53	43	23	7	2.163	1.155
도서관 홈페이지	52	25	46	59	21	2.862	1.357
일간지	78	46	51	18	10	2.192	1.185
잡지	79	49	51	13	11	2.153	1.169
TV	82	54	40	20	7	2.094	1.142
라디오	85	63	34	15	6	1.985	1.074
휴대폰	83	56	32	24	8	2.103	1.179
이메일	76	50	42	24	11	2.232	1.223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72	40	45	34	12	2.379	1.282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1	45	42	26	9	2.197	1.219

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효과적 홍보 매체 유형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홍보 매체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4.054),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3.946점),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3.778점) 등을 통한 홍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구 홍보물(3.153), 전광판(3.158), 간담회 및 공청회(3.207), 인터넷 방송(3.212)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잡지를 통한 홍보 형태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 더 효과적이라 응답하였다. 연령에 의한 차이는 간담회 및 공청회로 20대에 비해 50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신문, 지역구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간담회 및 공청회, TV, 라디오, 휴대폰, 이메일 등 대부분의 홍보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신문,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등 직접적인 홍보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신문, 지역구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간담회 및 공청회, 일간지, 라디오, 휴대폰, 이메일, SNS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방송,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 자료를 선호한 반면, 일반이용자의 경우 신문, 지역구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일간지, 라디오, TV 등 오프라인 매체를 선호했다. 문학 관련 교수 그룹은 이메일이나 포털사이트를 가장 선호했으며, 신문이나 지역구 홍보물 등 지역 홍보매체는 다른 이용자유형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교사 그룹의 경우 TV, 라디오 등 전국적 방송과 포털사이트, SNS 등이 효과적인 홍보 매체라고 응답하였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광고는 11회~20회 이용한 응답자가 31회 이상 자주 이용한 이용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형태에 대해서는 10회 이하 이용한 이용자가 3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라디오에 대해서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보다 근대문학 전시 및 관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표 15>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효과적 홍보 매체 유형

서비스 효과적 홍보 형태	전혀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음	보통	이용함	매우 이용함	M	Std
인터넷 방송	20	26	70	65	22	3.212	1.112
신문(지역신문)	10	25	82	65	21	3.305	0.983
지역구 홍보물	11	37	86	48	21	3.153	1.015
대중교통 광고	13	33	72	58	27	3.261	1.084
전광판	14	34	86	44	25	3.158	1.065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	7	11	67	68	50	3.704	1.011
간담회 및 공청회	15	30	80	54	24	3.207	1.070
도서관 홈페이지	3	5	44	77	74	4.054	0.902
일간지	12	29	79	63	20	3.246	1.014
잡지	11	29	72	67	24	3.315	1.034
TV	13	22	57	77	34	3.478	1.091
라디오	12	34	66	63	28	3.300	1.087
휴대폰	11	17	56	79	40	3.591	1.065
이메일	8	21	61	75	38	3.562	1.034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5	10	44	76	68	3.946	0.986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5	17	55	67	59	3.778	1.037

이용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라.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내용 구성 개선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내용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4.094)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좀 더 알기 쉽게 구성되어야 할 것(4.049)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디자인적 요소(3.640)와 재미요소 측면(3.68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내용 개선과 관련해 차이가 없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재미요소 측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재미의 측면을 매우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교사(4.133)의 경우 ‘좀 더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이용자(3.900) 또한 재미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대학원생(3.086) 및 근대문학 교수(3.442), 연구자(3.333), 종사자(3.333) 그룹의 경우 재미적인 측면의 개선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좀 더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좀 더 시각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교사들의 경우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대학원생 및 교수, 연구자 등 근대문학자료를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그룹의 경우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좀 더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31회 이상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했던 이용자보다 21~30회를 이용했던 이용자가 더 재미적 요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좀 더 간단히 구성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중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좀 더 간단한 구성을 원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 측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기술방식도 알기 쉽게 구성되기를 원했다. 근대문학이 생소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근대문학종합목록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경우 구성적 측면에서 간단한 구성을 원하고 있어 근대문학종합 목록 시스템의 내용 구성에 있어 좀 더 간단한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경우 재미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을 고려한 제안임을 감안하여 교육적 접근에 있어 재미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문학 연구자 그룹과 일반이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이용자와 연구자들 사이에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16〉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내용 구성 개선 방안

서비스 내용구성 개선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Std
좀 더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4	13	70	73	43	3.680	0.944
좀 더 알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2	5	40	90	66	4.049	0.843
좀 더 간단히 구성되어야 한다	1	12	56	84	50	3.837	0.883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한다	1	3	39	93	67	4.094	0.787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4	15	74	67	43	3.640	0.962

마.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근대문학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4.3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확대 구축(4.163)과 근대문학자료를 한국영상자료원(영화박물관), 예술자료원(음악, 연극 등), 국가기록원(사진 등), 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한 통합검색 및 활용서비스 개발(4.163),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목록 정보 요소의 확대(4.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대문학자료를 북머신(Book Machine)을 통한 즉석 책 제작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 활성화 방안(3.724)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의한 차이는 근대문학자료를 북머신을 통한 즉석 책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대에 비해 50대가 그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근대문학자료 전시 및 행사, 교육 정보 제공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1세 이상(3,433)은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근대문학자료를 북머신을 통한 즉석 책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대학 재학생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근대문학자료 전시 및 행사, 교육 정보 제공의 확대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유형에 따라서는 문학 관련 교수의 경우 연구에 적합한 근대문학자료 종합목록 확대 구축, 근대문학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근대문학자료 목록정보 확대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대문학자료를 초·중·고 국어, 국사 등 교과서의 단원과 연계된 서비스 개발, 근대문학자료를 북머신을 통한 즉석 책 제작 서비스 제공, 근대문학자료 전시 및 행사, 교육 정보 제공의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근대문학자료를 초·중·고 국어, 국사 등 교과서의 단원과 연계된 서비스 개발하는 방안의 경우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게 이용한 이용자일수록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디지털 원문자료의 제공 및 근대문학자료 종합목록의 확대 구축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문학을 넘어 영화, 예술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미래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근대문학을 살펴보았을 때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어 및 역사 교과서의 근대문학 작품과의 연계 및 북머신 등을 통한 체험적 홍보 활동, 전시 및 행사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근대문학 교육적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표 17〉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Std
근대문학자료의 종합목록 확대 구축	0	3	39	83	78	4.163	0.782
근대문학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0	4	28	67	104	4.335	0.787
제공하는 근대문학자료 목록 정보 요소의 확대	1	3	40	83	76	4.133	0.813
근대문학자료를 초·중·고 국어, 국사 등 교과서의 단원과 연계된 서비스 개발	3	10	51	75	64	3.921	0.946
근대문학자료를 한국영상자료원(영화박물관), 예술자료원(음악, 연극 등), 국가기록원 자료(사진 등), 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과 연계된 통합검색 및 활용서비스 개발	0	5	31	93	74	4.163	0.770
근대문학자료의 링크드 데이터(공개된 자료의 데이터셋) 구축	1	6	45	80	71	4.054	0.857
근대문학자료를 북머신(Book Machine)을 통한 즉석 책 제작 서비스 제공	9	10	63	67	54	3.724	1.050
근대문학자료 전시 및 행사, 교육 정보 제공의 확대	3	7	50	80	63	3.951	0.911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2	7	54	82	58	3.921	0.881

바. 근대문학자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유형으로 E-mail 서비스, SNS 서비스, Flickr 서비스(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YouTube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FAQ(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Q&A(질의응답 서비스) 등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직접 서비스로 모바일 서비스(3.94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E-Mail 서비스(3.818), SNS 서비스(3.7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모바일서비스, FAQ 서비스, Q&A 서비스 등을 남성에게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E-Mail 서비스의 경우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세 이상 고령의 경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서비스는 20대(4.170)가 60세 이상(3.400)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SNS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었다. SNS 서비스나 FAQ 서비스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는 E-Mail 서비스의 경우 문학 관련 교수(4.209), 문학 관련 종사자(4.167)가 선호하고 있었으며, 선호도에서 대학생(3.278)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SNS 서비스의 경우 대학생(4.278)과 교사(4.033)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FAQ 서비스와 Q&A 서비스는 문학관련 종사자(4.333 동일)의 경우 선호하는 반면, 문학 관련 연구자(3.333 동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 차이가 나타난 서비스는 SNS 서비스, YouTube 서비스, FAQ 서비스, Q&A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31회 이상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 그룹은 그 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이용자 그룹은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앞서 언급한 홍보 매체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표 18〉 근대문학자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

맞춤형 강화 서비스 방안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M	Std
E-mail 서비스	1	18	55	72	57	3.818	0.960
SNS 서비스	3	17	53	78	52	3.783	0.971
Flickr 서비스(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15	30	82	56	20	3.177	1.043
YouTube 서비스	6	17	73	69	38	3.571	0.984
모바일 서비스(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1	11	50	77	64	3.946	0.908
FAQ(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4	13	69	65	52	3.729	0.980
Q&A(질의응답) 서비스	2	13	68	63	57	3.788	0.959

사. 근대문학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근대문학 관련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근대문학 관련 이용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서비스로는 근대문학 전시회, 강연회, 관련 공연, 연계 영화상영, 문학탐방, 토론회, 문화행사 등을 제시하고 이들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제시한 활성화 방안 중 응답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근대문학 문화행사(4.054)였으며, 다음으로 근대문학 강연회(3.961), 근대문학 전시회(3.941)순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근대문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경우 3.798~4.054로 많은 이용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성별과 연령에 있어서는 근대문학 관련 이용서비스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근대문학 연계 영화상영에 대해 높은 필요성 나타났다. 이용

자 유형에 따라서는 근대문학 강연회의 경우 문학 관련 종사자(4.167), 일반이용자(4.157)가 대체로 선호하고 있었으나 대학원생(3.583)이나 문학 관련 연구자(3.583) 등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근대문학 관련 공연은 교사(4.067) 및 일반이용자(4.014)가 선호하였으며, 대학원생(3.417) 및 문학 관련 연구자(3.500)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근대문학 연계 영화상영은 문학 관련 종사자(4.167) 및 일반이용자(4.157)가 선호한 반면 문학 관련 연구자(3.417) 및 문학 관련 교수(3.581)는 선호도가 낮았다. 근대문학 문학탐방은 일반이용자(4.171), 국어·역사 교사(3.967), 문학 관련 교수(3.907)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생(3.167)은 다른 이용자 그룹보다 선호도가 낮았다. 근대문학 토론회는 문학 관련 교수(4.187), 일반이용자(4.071), 문학 관련 종사자(4.000) 그룹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3.333) 및 문학 관련 연구자(3.375)는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라서는 근대문학 연계 영화상영의 경우 31회 이상(3.333) 근대문학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고, 11회~21회(4.167), 10회 이하(3.961), 이용 경험 없음(3.901) 등은 다른 그룹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용 활성화 방안 모든 부분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근대문학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단위: 명(%)

활성화 방안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M	Std
근대문학 전시회	3	7	45	92	56	3.941	0.877
근대문학 강연회	2	6	45	95	55	3.961	0.838
근대문학 관련 공연	3	16	53	78	53	3.798	0.967
근대문학 연계 영화상영	4	6	60	78	55	3.857	0.920
근대문학 문학탐방	4	7	53	78	61	3.911	0.934
근대문학 토론회	2	7	61	79	54	3.867	0.883
근대문학 문화행사	1	4	44	88	66	4.054	0.816

VI. 논의 및 제언

1. 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인 근대문학자료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용활성화를 통해 근대문학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대문학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료를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있는지, 만약 성과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의 요구 및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 근대문학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과거에 제공하였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근대문학자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제공하는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5%는 한 번도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54%는 10회 이하로 근대문학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특성 상 근대문학관련 이용자가 다수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응답자는 제공되는 근대문학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37점으로 보통(3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인 전시 및 관람(3.857), 워크숍 및 세미나(4.000), 간행물열람(4.000)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동인을 통해 잠재적 이용자의 실제적 이용자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제공정보 신뢰,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제공정보 활용가치, 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용, 다른 DB에서 없는 자료 소장,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재이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만족도가 실질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대문학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는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제공 경험을 조사한 결과 60%의 응답자가 단 한 번도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홍보를 접한 이용자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

홍보 방안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시 및 관람 정보에 대한 홍보는 근대문학자료 이용자로의 직접적 발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 관람 행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홍보물의 유형 중 제공 경험이 있는 홍보물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홍보 매체에 대하여 낮은 경험치를 보였다. 경험한 홍보물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을 보이는 유형은 도서관 홈페이지(2.862), 도서관 게시판 및 현수막(2.473),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2.373)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로를 통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여전히 근대문학에 대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접하고 있었으며, 여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의 홍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 매체의 다양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홍보 매체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4.054),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3.946점),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3.778점) 등을 통한 홍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구 홍보물(3.153), 전광판(3.158), 간담회 및 공청회(3.207), 인터넷 방송(3.212)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본 설문문의 응답자들의 경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 방법의 상당수는 도서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매체의 선택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저학력과 고연령층에서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홍보매체의 선정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의 주 이용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 그룹의 경우 이메일리스트를 통한 홍보를 선호하고 있어 SDI, RSS, 근대문학메일링시스템의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공적유산인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 시스템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개편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재설계 수준에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대문학종합목록’이라는 시스템의 명칭의 변경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학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은 도서관의 경우 정보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경우 정보서비스에 그 초점이 있으며, 대다수의 이용자가 응답한 것처럼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핵심 주체는 연구자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의 경우 원본자료, 원본자료에 대한 디지털 자료 등을 가장 원하

고 있으며, 근대문학 신규자료에 대하여 모바일 등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포럼, 강연회, 전시회 등의 개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의 핵심이용자가 연구자임은 분명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근대문학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대문학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라키비움을 통한 접근성 확보와 함께 가족단위 및 학생 등 일반이용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근대문학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험형 근대문학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관중별 도서관과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대학연구소, 박물관, 개인소장가 등 근대문학자료 소장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는 연차 계획을 통해 네트워크형 북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규모 기관에 대한 자료 구축 시스템 지원 또한 필요하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근대문학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즉,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주 이용자 및 이용 목적, 이용률이 많은 근대문학 분야 및 자료형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홍보 매체,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 사항,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강화,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근대문학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근대문학과 관련한 자료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의 주 이용자층에 대한 물음에는 근대문학 연구자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이용 목적은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근대문학 서지데이터 중 중요한 요소로는 자료명, 저자, 원저작명, 자료유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단행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 장르는 소설과 시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다. 근대문학자료의 선호형태는 근대문학 원본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원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374점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세부 만족도로는 근대문학종합목록에 있는 정보 및 활용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근대문학자료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에 대한 경험이 매우 낮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내용구성 측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인적 측면과 재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디지털 원문 구축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확대된 종합목록 구축 및 영화, 예술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방안으로 모바일을 통한 직접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고, 문화행사 및 강연회, 전시회 등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검색결과가 상세하지 않거나 원문정보에 대한 접근 환경이 다소 부족하며, 익스플로러 이외의 검색 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좋지 못하며, 작가관련 정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심미성 측면과 다운로드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활용면에 있어서도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과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홈페이지 개선사항으로는 상세 검색 기능의 추가 및 원문정보의 확대와 타 기관과의 공유 확산을 들었으며, 근대문학종합목록이라는 명칭에 대한 변경과 함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추가적 목록구축을 통한 통합적 목록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원문 제공 서비스의 경우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타 기관과의 차별성 있는 근대문학 콘텐츠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홍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원문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시 및 관람 정보에 대한 홍보는 근대문학자료 이용자로의 직접적 발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 관람 행사의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도서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매체의 선택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저학력과 고연령층에서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홍보매체의 선정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졌다.

참고문헌

-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 201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27-57.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5.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 문학 단행본 자료와 근대 문학잡지 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 주요 종합잡지(1894-1945) 및 매일 신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홍현진, 노영희, 강미희, 정대근. 2014.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홍현진, 노영희, 강미희, 정대근. 2015.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81-405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5). "Library course page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1(3): 33-43.
- Bnf data.bnf.fr [online]. [cited 2017.11.30.]. <<http://data.bnf.fr/>>.
- Dahl, Candice. 2001. "Electronic Pathfinder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Their Content and For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27-237.
- Dunsmore Carla. 2002. "A Qualitative Study of Web-Mounted Pathfinders Created by Academic Business Libraries." *Libri*, 52(3), 137-156.
- Library if Congress Bibliographic Framework Initiative. [cited 2017.11.30.]. <<https://www.loc.gov/bibframe/>>.
- Morris, Sara E, Darcy Del Bosque. 2010. "Forgotten Resources: Subject Guide in the Era of Web 2.0,"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27: 178-193.
- Maureen, K. and G. Kim. 2008. Racing Information to the Student Using Ruby on Rails: Oregon State University Libraries. [online]. [cited 2016.06.13.]. <http://units.sla.org/division/dbio/events/conf_past/NY/FocusedInformation.pdf>.
- Reed, Brenda and Susan Gibbon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Libraries and the Academy*, 4(1), 123-130.
- Rebecca, Jackson, Pellack J. Lorraine. 2004. "Internet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Contents, Practices, and Opinion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4):319-327.
- Rebecca, Jackson, Stacy-Bates K. Kristine. 2016. "The Enduring Landscape of Online

- Subject Research Guid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5(3): 219–225.
- Tchangalova, N. and A. Feigley. 2008. “Subject Guides: Putting a New Spin on an Old Concept.”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9(3). <http://southernlibrarianship.icaap.org/content/v09n03/tchangalova_n01.html>.
- OCLC WorldCat [online]. [cited 2017.11.30.].<<http://www.worldcat.org/>>.
- Ouellette, Dana. 2011.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 User–Centred Study of Uses an Percep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5(4): 436–541.
- Wakeham et al. 2012. “Library Subject Guide: A Case Study of Evidence–Informed Library Development.”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99–207.
- Yang, Sharon Q.. 2009. “Subject Guide 2.0 : A Dream of Reality?”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1): 90–98.
- Yao, Chen, Chen Xi. 2015. “Web–based Subject Guides for East Asian Studies: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 *Internet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0:1–17.

[웹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Retrieved from <http://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센터. Retrieved from <http://literature.nl.go.kr>
- 한국 문학관 협회. Retrieved from <http://www.munhakwan.com>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ong, Hyun–Jin, Noh, Y., Kang, Mi–Hee, & Jeong, Dae–Keun. 2014. Developing and constructing subject guides by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modern literatur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Hong, Hyun–Jin, Noh, Younghee., Kang, Mi–Hee, & Jeong, Dae–Keun. 2015. A research on user’s awareness of subject guid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381–405.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38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odern Korean

- literary resources in domestic possess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odern Korean literary resources in domestic possess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odern Korean literary resources in domestic possess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Younghee, Jung-A Kang and Dae-Keun Jeong, 2016,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Use of the Subject Guide Servic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7~57.